

한일미래포럼을 마무리하며

20191629 이원기

한일미래포럼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이 만나 토론하고, 교류회를 통해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포럼이다. 1차 포럼 이전에는 소규모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토론 준비를 한다. 올해의 경우, 메인 행사인 1차 포럼은 서울에서 9월 1일 ~ 9월 4일, 2차 포럼은 시가, 교토, 오사카를 오가며 11월 3일 ~ 11월 6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두 포럼 모두 토론회, 여행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1일차에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한국 학생, 일본에서는 일본 학생이 발표하고, 그 발표주제를 두고 토론했다. 발표에 관한 토론이 끝나면, 개인 토론문을 통해서 주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더 이야기할 수 있다.

2일차부터는 여행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국에서는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견학했다. 일본에서는 청수사, 오사카성 등을 견학했다. 또, 오사카의 축제 중 하나인 왓소마츠리에 참여하였다. 일본에서의 포럼을 마지막으로 행사는 종료된다.

처음 한일미래포럼을 알게 된 것은 학과에서의 추천 덕분이었다. 회화 실력을 시험해보고, 평소 일본인에게 궁금한 것도 많았기 때문에 좋은 기회였다. 무료로 일본 여행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금상첨화라고 생각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토론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해, 일본은 한국에 대해 발표하여야 했다. 정치 분야를 맡아 조금 어렵긴 했지만, 일본의 외교, 정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 학생들이 피드백해주고, 자신의 견해 또한 덧붙여주어 유익했다. 또, 평소 일본인에게 묻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교육이나 유행 등 사소한 것까지 편하게 답을 들을 수 있다. 여행 프로그램도 재미있었다. 특히 학교에서 눈으로 보기만 한 마츠리를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 도래인을 모티브로 한 축제여서, 공연에서 일본, 한국의 역사 인물이 모두 등장한다. 그때마다 일본 친구들과 서로 설명해주며 역사에 대해서도 견해를 주고받았다. 일본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일본 대학생과 며칠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 일본에 대해 주제를 정해 공부하고 토론과 발표하는데 관심이 있는 경우, 좋은 경험이 되리라 본다.

〈왓소마즈리 모습〉

